

“서암 스님 개혁승으로 재평가 돼야”

불교교단연구소, 학술회의 및 열반 5주기 추모 법요

한국불교사에 어두운 사건으로 기록된 1994년 조계종 종단 사태는 ‘종단개혁’이라는 긍정적 측면과 함께 불자의 아픔으로 남아있다. 지난 정권에서 ‘과거청산’ ‘과거사 진상조사’ 시류 속에서 1994년 종단 사태가 다뤄지지 않았던 것은 속세의 시비를 벗어난 승가의 일이기 때문일다. 이런 가운데 “당시 조계종 중흥이었던 종단 사태로 초야에 묻혀야 했던 서암 스님은 진정한 개혁승이었다”는 주장이 제기돼 눈길을 끈다.

불교교단연구소(소장 원두)가 서암 스님 열반 5주기를 추모해 ‘94년 종단사태의 회고와 전망’을 주제로 마련한 학술회의는 스님의 열반 5주기 날인 3월 29일, 서초동 수안사(주지 세민)에서 열렸다.

김광식 교수(부천대)는 ‘송서암의 불교 개혁론’을 통해 “서암 스님은 울곧은 수좌였고, 조계종단의 중흥을 역임하며 한국 현대불교사에서 일정한 위상을 점한 수행자였다”면서 “서암 스님의 불교개혁론의 요체는 ‘종단재건안의 기본방향’이라 말했다.

김 교수는 “부처님 법에 맞는 도리를 모르는 사람은 없다. 문제는 실천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을 뿐”이라는 서암 스님의 회고를 인용해 “스님이 부처님 법에 맞는 개

혁을 추진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그 근거로 스님이 원로회의 의장에 추대된 후 1991년 7월 5일 서울 대각사 기자회견에서 ‘승려대표자대회 취지문’을 발표하면서 종단을 구성하는 승려대표자들에게 종단 진로를 결정케 하고자 했음을 제시했다. 서암 스님이 추구했던 개혁의 방향을 김 교수는 ▲원로회의를 통한 중흥 선출 ▲종풍 쇄신 위한 개혁위원회 구성 ▲불교중흥을 목적으로 자급원 확보를 위한 사원경제 편중 배제했다고 구분했다.

이런 서암 스님의 개혁안은 1993년 11월 ‘석존의 교법에 의한 종단재건’으로 구체화됐고, 김 교수는 서암 개혁론 특징을 ▲1970년대부터 20여년간 대두된 종단의 모순, 파행, 문제가 모태 ▲출장 중시 ▲개혁주체로 원로회의 중시 ▲개혁방안으로 승가교육 중시 ▲재정의 투명성 중시 ▲출가와 재가를 통합한 종도대표자회의 구성 등으로 정리했다.

김 교수는 “서암 스님을 종단개혁에 반하는 인물로 인식·단정했던 제도권 ‘종단개혁’ 주체의 기존 해석이 재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어 탁산 스님(불교교단사연구소)은 ‘94년 종단사태와 칠보사 원로회의’에서 “중흥 불신임을 촉구하고 4·10 승려대회



3월29일 서암 스님 열반 5주기 기념 학술회의에서 사회자 해운 스님과 불교교단연구소장 원두 스님(왼쪽부터).

개최를 결의했던 칠보사 원로회의가 종헌에 명시된 소집권자에 의해 소집되지 않았다는 점 등을 들어 위법한 회의였다”고 주장했다.

발표 후 좌담에서 명선 스님(조계종 원로위원, 현해 스님前, 동국학원 이사장), 인환 스님, 마성 스님 등은 서암 스님의 재평가와 명예회복의 정당성에 관한 의견을 냈다.

“중흥을 불신입한 것은 종단의 비참함이었다”는 명선 스님은 “이제라도 바로잡아 명예를 회복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현

해 스님은 “1994년 종단사태 등은 종단의 주요 소임을 권력으로 오인해 일어난 사태”라고 규정하고 “서암 스님은 (권력 다름의) 희생양”이라고 애도했다. 학술회의가 끝난 후 서암 스님 열반 5주기 추모 법회가 봉행됐고, 사부대중 100여명이 동참했다.

한편 열반한 서암 스님의 ‘중흥 복권’ 추진은 현 조계종 체제가 1994년 종단개혁을 발판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상호 이해와 용서로 대승적 화합을 이룰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조동섭 기자 cetana@buddhania.com

제10회 진각논문대상 공모

진각종 교육원(원장 경정 정사)은 5월 16일까지 제10회 진각논문대상 공모 논문계획서를 접수한다.

논문은 3개 분야로 나뉘어 진각종 교학 2편, 일반 불교 3편, 밀교일반 3편을 선정한다. 주제는 지정주제와 자유주제가 있으며, 올해의 지정주제는 ▲참회의 원리와 사상 ▲진언수행과 연불수행의 2가지다.

진각종 교학학립과 불교 및 밀교 연구 발전을 위해 매년 실시되는 진각논문대상은 학력과 전공 제한 없이 누구

나 응모할 수 있다. 최우수 논문 1편에는 장학금 500만원이 수여되고 기타 선정된 7편에는 각 200만원의 장학금이 전액진다.

한편 접수된 논문계획서는 심사를 거쳐 6월 19일 당선작을 발표하고, 당선자들은 논문을 작성해 11월 14일 발표회에서 논문을 평가받게 되며, 당선작은 2009년 6월 발간예정인 <회당학보> 제14집에 게재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진각종 홈페이지(www.jingak.or.kr) 참조. 조동섭 기자

진안 천황사 전나무 천연기념물 지정예고

문화재청(청장 이강우)은 4월 2일, 한국에서 제일 큰 전나무로 알려진 전북 진안 천황사 전나무를 국가지정 문화재(천연기념물)로 지정예고 했다.



이 인종재 전나무로는 처음으로 천연기념물이 된다. 조동섭 전북지사장

이르러 현재까지 알려진 한국의 전나무 중 가장 크다.

30일간의 예고기간 동안 관련학자, 토지소유자, 지방자치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천연기념물로 지정될 천황사 전나무는 수려한 자태와 학술적 가치 등

이 인종재 전나무로는 처음으로 천연기념물이 된다. 조동섭 전북지사장

이 인종재 전나무로는 처음으로 천연기념물이 된다. 조동섭 전북지사장

우리 학회는

(3)빨리문헌연구소

rip.lor.kr

빨리문헌 경전번역으로 새전기 맞고있어

빨리어로 된 경전인 빨리삼장은 붓다의 교설을 제1대 제자들이 기록했다 해서 붓다의 원음에 가장 가까운 성정으로 평가된다. 한국에서는 주로 한역경전(漢譯經典)을 의지해 불교학을 연구했지만, 최근 마성 스님, 대림 스님, 전재성 박사 등에 의해 빨리(pali) 문헌 경전이 번역되면서 불교학의 새전기를 맞고 있다.

빨리문헌연구소(이하 연구소)는 마성 스님이 빨리문헌 연구와 관련 학문분야 연구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2000년 11월 1일 설립했다. 연구소는 ▲빨리

문헌에 관한 연구 조사 ▲빨리문헌의 수집과 번역 ▲연구 논문 및 기타 간행물 발간 ▲국내외 연구기관과의 학술 교류 ▲학술회의, 강연회 개최 등의 다양한 사업을 전개 중이다. 회원은 후원회원과 일반회원 둘로 나뉘며 회비는 후원회원은 1년 10만원, 일반회원은 1년 2만원 회비가 있다.

한편 빨리문헌연구소는 지난 2007년 12월 27일 50여명의 사부대중이 모여 후원회 결성식을 갖고 후원회 회장에 광범 스님, 고문으로 해성 스님을 추대했다. (055)285-9383 조동섭 기자

다보탑·석가탑 보수 시급

정중현 교수 등 문화재·환경전문가 6명 공동 발표 ‘불국사 석조문화재 풍화·훼손 특성’ 주제로 ‘신라문화’에



풍화 등으로 훼손이 심각한 다보탑. 이끼에 덮여 훼손된 모습과 난간에 균열된 모습들(왼쪽부터).

신라 천년의 아름다움으로 대표되는 경주 불국사 다보탑(국보 20호)과 석가탑(국보 21호)의 훼손이 심각하다는 주장이 제기돼 비상한 관심을 모은다.

정중현 교수(서라벌대), 손병현 교수(한서대), 정민호 연구원(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등 6명의 문화재 및 환경 전문가들은 최근 동국대 신라문화연구소에서 발행하는 <신라문화> 제31집에 게재된 ‘불국사 석조문화재 풍화·훼손 특성’의 주제 논문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정중현 교수 등은 “우리나라 석조문화재 중 약 10% 정도가 경주지역에 분포돼 있지만 별다른 보존대책 없이 방치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산성비 등에 의한 풍화작용과 이끼와 같은 생물에 의한 훼손이 진행되고 있다”고 경고했다.

정 교수 등이 조사한 결과 다보탑은 지붕처럼 석탑을 덮고 있는 옥개석 아래 옥석받침 표면이 풍화작용으로 부식되고 구멍이 뚫려 있었다. 심한 경우 석재 표면이

떨어져 나가 겉게 부식되고 강도가 약화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등 훼손상태가 심각했다.

보존상태가 심각하기는 석가탑도 같았다. 탑 중심부의 지반 침하로 주변부가 위로 솟은 석가탑은 탑신과 옥개석에 삽입된 철편

이 산화하면서 발생한 황갈색 수산화철이 변색돼 2차 오염현상을 보이고 있었다. 탑 표면의 오염상태도 심각했다. 곰팡이, 이끼 등이 서식하고, 난방연료 배출가스, 자동차 배기가스 등이 원인으로 보이는 먼지와 검버섯으로 오염돼있었다.

정중현 교수 등은 “풍화로 인한 훼손정도를 수치화한 풍화등급으로만 봐도 석가탑은 정기점검이 필요한 4등급이며, 다보탑은 정밀진단이 필요한 5등급이다. 석조문화재에 대한 보전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하며, 대기오염 배출원에 대한 기초조사, 다보탑과 석가탑에 빗물 유입 방지장치 마련 등을 대책으로 제안했다.

한편 국립문화재연구소(소장 김봉건) 전통건축연구실은 금년 상반기 중 불국사 석가탑·다보탑 보수에 나설 계획임을 밝혔다.

올해 다보탑과 석가탑의 보수작업이 시작되면 각각 1971년과 1961년 이후 40여년 만에 보수가 이뤄진다. 조동섭 기자

꺼져가는 영혼과 육신을 살리고 건강찾는 비법으로 생사를 해탈하신 중국소림 면벽 달마조사의 비전으로 이어온 선단식 5일 금식비법 건강수련법회

달마 의통비법인 선단식 금식법으로 육신의 병, 정신의 병, 잡신의 병, 귀신의 병, 마음의 병 수련법 사람의 병은 두가지로 부터 생기는 고로, 하나는 정신에서 오는 병은 억지로부터 내려오는 해탈 못한 영가로 병의된 귀신에서 오는 병이고 또 하나는 마음에서 온 병으로 아픈것은 현대의학이나 한방,양방으로도 고칠 수 없으며, 병원에서는 살이 찢어지거나, 부러진 것은 치료하면되지만 정신과 심신, 마음에서 온 병은 오직 달마의통능력만이라야 고칠수 있으므로, 본 달마중 태일대사는 달마대사의 비법을 경신, 도통으로 달마 5일 선단식 금식비법 영역의 전권을 이어받아 수련법으로 중생을 구제하는 수련법을 마련하여,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 정지한 후학들에게 이 비법을 전수하시니 뜻이 있으신 분은 동참하시어 이 법을 전수하시고 주병을 병으로 고생하고 있으나, 돈이 없어 어렵고 고통받는 이웃에게 봉사할수있는 기회이오니 지금까지 각종 방법으로 치료하는 지도자 단전호를 및 요가, 기수련, 마시지 지도자 및 목욕탕에서 중시하시는 분들은 남을 지압하여 자신의 기가 빠져 나가 앞으로는 돈은 벌지만, 뒤로는 기가 빠져 회복이 어렵고, 건강과 기력이 없어 힘을 못쓰고, 각종 병에 병의 되어 고통받는 분들은 이법을 수련 전수 받으시면 큰 노동과 큰 힘을 들이지 않고도, 수련하시어 기 관리법과 기를 돌릴 수 있는 달마의통비법을 전수 받으시면, 기가 빠지지 않고 자신의 건강과 힘이 되어 남을 치료해도 기가 빠지지 않는 특별기도법을 명심하십시오.

달마의통선단식 금식비법을 수련하시면 살이 찌는 비만병, 고혈압, 당뇨병,간장병,위장병,신경통 및 관절염,신장,기관지,50건통,중풍,치매병,방광신장병,말기고병명없이 아픈병,말문이 터지지 않는 신병, 등을 관리 및 다스리는 법을 증득하시는 건강증진,심신도량이며 사람은 누구나 생노병사의 병으로 죽는것을 미리 수련하여 건강을 지키는 비법이며 이 모든 병은 간장과 신장과 비장과 담낭에서 조 절하는 담즙과 인슐린이 발생 못하면 알파 세포가 정지되는고로 오장육부에 노폐물이 집어 정신과 심신과 육신에 혈류가 막히어 생기는 포만증으로 모든 병은 먹지도 않아도 살이 찌는 병이 발생하므로 이러한 모든 병든자들이 즉시 건강을 회복하는 수련법을 증득하면 즉시 살이 빠지고, 당뇨,고혈압이 거의 치료되는 5일 선단식 금식법으로 본인이 수련하여 자신도 구하고 가족도 구하고 이웃도 구하는 달마면벽 건강약사여래왕기도 선단식 5일 특별 방지 비법 수련법인 수행법을 본 세계불교 달마중 종본산 경신도통회 달마 건강 수련법 태양의 집에서 후 전도법으로 계통 800년 대운이

心 시작되는 무자녀 계몽명당 계두봉 봉 황봉산하 비산비하 서충동유 지장수로 선단식 금식 수련하시어 병으로 죽는것을 미리 예방하여 고통을 면하는 수행도량에 입문하시고 건강을 찾아 남은 생애를 만수무강하시오.

명예나 돈을 잃는것은 재기할수 있으나, 건강을 잃으면 다시 찾을수 없는 모두를 잃는 것이오니 조금이라도 건강하심때 찾으시고 수행하시어 특히 어린이 포만증은 정신집중이 안되며 어린이 당뇨병과 혈압 비만 동통한 병은 생명을 앗아가는 합병증으로 고생하시는 모든분들은 다시 없는 기회이오니 이 기회에 동참하시어 이세상에서 가장 귀한 건강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이 수련을 하시면 머리가 맑아지고 중풍치매 예방 및 온몸에 노폐물이 빠지고 피부는 윤택해지고 살이빠지며 심신이 안정되어 살아 가시는 데 가장 건강하게 사는 비전인 것입니다.

- 기도 입제일 : 매월 첫째 토요일과 셋째 토요일(4/19 일제)에 시작하여 토, 일, 월, 화, 수요일에 회향하며 토요일, 일요일에는 합동 철야 정진법회도 병행합니다.
- 장 소 : 충남 연기군 서면 봉암2리 259번지 천하명당 계룡산 봉황봉산하 비산비하 지장생명수인 태양의 집
- 전화접수처 : 서울본당 02)821-6622 / 02)821-7767 041)867-7763, 016-239-3110 / 010-2891-3117
- 지도법사 : 명계스님, 비구니 보현스님 (강사)지모 이체희
- 증명법사 : 태일대사 ■ 준비물 : 간단한 복장, 세면도구
- 수련법회 참가비 : 5일 침식제공, 일금 15만원 (선착순) * 온라인 : 농협 029-01-167866 (락태일)
- 교통안내 : 기차는 경부선 호남선 조치원역하차 → 전국 고속버스 조치원 하차, 조치원역 광장 → 시내버스(조치원 공주행, 조치원 대평리행) 서면 봉암리 하차 → 봉암 농협 앞유수나 봉암2리 259번지태양의 집

달마건강동우회수련원 태양의집
웅조달마경신도통회
세계불교달마중종본산

성인병 (당뇨·고혈압) 예방 9번찌고 말린 첫서리맞은 빵잎차

빵나무는 신선목이라 하기도 하고 빵잎은 한방명으로 신선엽(神仙葉)이라 합니다. 신선엽(神仙葉)은 빵잎을 장복하면 신선이 된다하여 붙여진 이름입니다.

구구구포 빵잎차의 특징

1. 혈당을 떨어뜨리는 성분이 10종이나 들어 있어 당뇨병 환자에게 매우 좋습니다.
2. 혈관내의 콜레스테롤 대사를 돕고 혈전을 용해시켜서 동맥경화를 예방합니다.
3. 다이어트, 소화촉진, 관절통 예방에 효과가 있습니다.
4. 머리를 맑아지게 하며 허머리가 검어지게 하며 탈모예방에 좋습니다.
5. 중풍(뇌졸중)을 예방해줍니다.
6. 중금속을 제거하는 효능이 탁월하고 소변을 잘 나오게 합니다.
7. 식이섬유가 녹차의 4.7배가량이나 많아 변비에 좋습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제15교구 금강선원 구입문의 : (055)931-9590
계좌번호 농협 843162-55-000050 금강선원



스님께서 수제로 정성들여 만든 빵잎차는 금강산원의 선원 불사와 범담불사에 회향을 하오니 신심 있으신 신도님들의 많은 동참 부탁드립니다.

www.ggzen.or.kr

